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남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실현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전남교육청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3일 제주교육청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진된 것으로, 정책기획조정, 진로·진학교육, 늘봄학교 운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정책기획조정·정책관리·빅데이터 분석 △진로진학교육 △디지털창의융합교육 △늘봄학교 운영 등 6개 분야별 정책 협의회를 열어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 중심의 진로·진학교육 실현 방안, 교사 진학지도 역량 강화, 2028 대입 제도 개편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고려한 진로진학지도 방안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대·과밀 학교 공간 확보 방안, 초



8일 전남교육청 회의실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방안,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대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양 기관의 서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하고,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데이터 통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교육부·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 공동데이터 활용대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6회 교육 공동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 낸 다양한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이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이 대회는 '교육 공동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을 주제로 △학생부(데이터분석·아이디어 기획)와 △일반부(데이터분석·아이디어기획·서비스/상품) 2개 부문 3개 분야로 실시된다.

학생은 물론 일반 도민까지 교육 공동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활용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예비 1차 서면심사(6월), 2차 발표심사(7월)를 거쳐 분야별로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총 82팀에 6,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활용대회 누리집 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7년 연속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멘토링을 희망하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와 진로상담 등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국가는 멘토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전북·제주권 주관대학에 이름을 올린 우석대학교는 장학금 7억 3400여만 원을 확보, 내년 2월 9일까지 200여 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학생 멘토 169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대학생 멘토들이 들려주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선순환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힘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격차해소특구 조성 지역소멸위기 극복

국립군산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구축 등 글로벌대학으로 도약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격차해소특구를 조성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나선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군산시와 협의해 산업인재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해소특구를 만들고, 대학 내 시설을 이용한 지역연계 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과 함께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한다.

국립군산대가 준비 중인 교육격차해소특구는 대학이 지역의 유아·초등·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나아가 취업까지 책임지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이 지역의 유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대학교육, 나아가 취업까지 책임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

국립군산대는 교육격차해소특구 운영과 함께 현장실습 및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을 연계하여,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자

리 잡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격차해소특구는 늘봄돌봄특화센터, 다문화가족문화지원센터, 지역연계복합센터, 장애인고등교육특화센터, 해양치유특화센터 등 총 5개 센터로 구성되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외국인·다문화 자녀 등 사회적 약자의 자녀와 산업인재 자녀, 공단근로자 자녀, 장애인 등이다. 늘봄돌봄특화센터와 다문화가족문화지원센터는 대학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 과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령장과 디지털스포츠포츠, 장애인 재활치료 기능을 갖춘 300억원 규모의 지역연계복합센터 및 장애인고등교육특화센터도 대학캠퍼스 부지에 구축한다. 장애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교육과 재활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의 시니어 돌봄 프로그램 및 장애인고등교육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교육 및 돌봄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해양치유특화센터를 고군산군도와 맞도에 구축해, 건강진단 컨설팅 및 마음상담 같은 예방의료시스템, ICT연계 원격치유시스템 등 해상치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필요한 전문인력을 평생교육원에서 해양치유사 협동과정으로 개설해 우선 양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양치유특화센터와 연계하는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의 범위가 유소년부터 시니어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지역민이 양질의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호 총장은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 국립대학교의 가장 큰 책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교육격차해소특구를 통해 산업인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일 스타센터 107호에서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공공기관 취업 준비 정보 공유

전주대,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일 스타센터 107호에서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릴레이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도내 7개 공공기관 실무자가 참여해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 정보를 공유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김선아(식품영양학과 4년) 학생은 "도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막연한 목표만 있어 어

려움을 느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김범경(경찰학과 4년) 학생은 "평소 접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알게 됐고, 기관별 채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현안을 고민하며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 미래인재 육성 인재 선발 15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해 재능개발을 지원하는 전북 미래인재를 선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인문, 예술, 체육,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도내 중·고교생을 선발해 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 미래인재를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해당분야의 국내대회(전국) 및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중·고교 재학생으로,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tke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평가해 진흥원 장학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본 사업은 일반적인 일회성 장학금과는 달리 다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작년에 선발된 학생들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해도 15명이 계속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재능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청렴표어 공모 도전하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17일까지 신청접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청렴표어(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에 대한 교육가족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 생활 속의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작품, 20자 이내의 표어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전자우편(smrui@jeedu.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1차 해당부서 심사, 2차 평가위원회 심사, 3차 전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최우수 1작품, 우수 2작품, 장려 2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다만, 타 공모전 수상 표어(유사 작품 포함)는 제출할 수 없으며,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동일·유사한 내용의 표어는 먼저 제출된 작품을 우선 인정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명함 및 홍보물, 각종 청렴 캠페인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이번 공모전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일상 속에서 청렴 생활을 실천해 나가 고자 진행했다"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5~9일 초등·중등·특수 교장자격 시·도 정책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창의적 학교 경영 리더십 함양

교육연수원, 초·중등·특수 교장 자격 시·도 정책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5~9일 초등·중등·특수 교장자격 시·도 정책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초등특수 53명과 중등·중등특수 87명 등 총 140명의 교장자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 리더십 함양 및 전북교육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강의, 토의·토론, 세미나 중심의 전북교육 10대 정책 주요 방향을 비롯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학교 교장 역할 디자인하기, 선배 멘토 교장과 함께하는 학교 조직문화 이모저모·Q&A로 알아보는 학교 경영 등 다

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교장자격 대상자들은 시·도 정책연수(17시간)를 이수한 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국가 정책연수(12시간)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본연수(18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문병기 교육연수원 원장은 "학교운영, 조직문화,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장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면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이룰 교장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세계시민 키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11월까지 문화다양성·세계시민교육 추진 'JB 지구촌 지원단' 구성... 119개교 대상 개별 방문 교육 담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문화다양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및 유관기관 근무 또는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JB-지구촌 지원단'을 구성, 4~11월까지 119개교에서 588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JB-지구촌 지원단은 개별 학교로 찾아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2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은 1~2차시로 이뤄진다.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이론, 문화 수용성 등의 개념 이해, 학교에서 필요한 문화다양성 함양 기록 등으로 진행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문화다양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고1~2 담임교사 대상 학생부 작성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부 기록 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한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고등학교 122학년 담임교사와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 건국대 방유리나 입학사정관과 전주기전여고 백해진 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방유리나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법과 사례'에 대해, 백해진 교사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부 기록 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부 기록이 더욱 중요시되는 입시 경향에 맞춰 진학지도와 연계한 학생부 작성법을 교사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